

‘한국 구법승...’ 국제 세미나 한국불교연구원, 4월 2일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진)은 4월 2일 동국대 90주년 기념관 예술극장에서 ‘한국 구법승들의 중국 내 활동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제 수행 차원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불교학계의 대표적 연구자인 로우리이(樓宇烈) 북경대학교 교수, 일본의 사토 아츠시(佐藤厚) 박사를 비롯해 정병조·김상현 동국대 교수 등 한중 불교교류사 전문가 5명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김상현 교수는 ‘7·8세기 해동구법승들의 중국에서의 활동과 의의’라는 논문에서 한국구법승들이 중국불교 전래 수용자로서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해 동아시아 불교사상 형성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조망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사토 아츠시 박사는 ‘입당승 신립과 신라화엄학에서의 위상’을 통해 8세기 중반에 활약했던 신라 화엄학승 신립(神琳)에 대한 본격적 검토를 시도한다. (02)762-5624

가산불교대사림 제7권 출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최근 <가산불교대사림> 제7권을 출간했다. 이번에 나온 제7권은 ‘무소위’이라는 표제어로 시작, ‘부수’까지 4500여 개의 표제어를 포함하고 있다.

<가산불교대사림>은 불교학 용어뿐 아니라 불교관련 인명·사찰·사지·문화재·역사적 사건까지 불교 관련 용어를 두루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불교대백과사전으로, 1999년 1·2권이 나온 이래 매년 1~2권씩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한자어·산스크리트어·페알리어·티베트어 등 원어와 원문을 병기하여 전문사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용어 설명은 가급적 쉽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용도의 활용도 가능케 배려했다. 총 15권으로 편찬 예정인 <가산불교대사림>에는 15만여 표제어가 실리게 된다. (02)765-9602

‘한국불교전서’ 제14책 출간

동국대 출판부는 최근 <한국불교전서> 제14책을 출간했다. 이번에 나온 제14책에는 제13책에 이어 통일신라시대 도론(道倫) 스님이 집찬(集撰)한 <유가론기(瑜伽論記)> 11~20권이 수록됐다.

<유가론기>는 인도의 마륜이 저술하고,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을 불문 스님이 주석한 것으로, 이 책은 인도·중국 및 한국의 유식학계 고승들의 사상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어서 <유가사지론>의 연구에 필수적이다. 유식학 연구의 지침서와 같은 책이다. 현재 14권이 간행된 <한국불교전서>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한국인이 친필한 불교서적을 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10책으로 조선편까지 마무리됐고 11권부터는 누락된 자료의 보완편(補遺篇) 성격을 띠고 있다. (02)2260-3483

문화재 절도 ‘전문화’ 암거래 ‘지능화’ 수사는 ‘제자리’

‘전담반’ 설치 미룰 수 없다

지난해 성보도난 14·회수 4점... 최근 10년 회수율 6.7%

3월 19일 목포 달성사서 6점 도난, 단서조차 못찾아

“현재의 ‘담당실’로는 정보관리·예방 기능 부족”

3월 19일 새벽 목포 달성사(주지 범법)에서 성보문화재 도난사건이 발생했다. 도난당한 성보는 전남 지방문화재 제 229호 목조지장보살반가상을 비롯해 시왕상(조강대왕상) 1위와 판관 2위, 녹사 2위 등 총 6점이다.

지난 2002년에 도난사건(판관 5위와 동자상 1위)이 발생했던 달성사에서 사건이 재발한 데다 지정문화재까지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사찰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중 사찰에 소장돼 있는 성보문화재는 절도에 취약하기 마련이다. 2004년 한 해 동안 사찰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만 도 제천 정방사 관음보살상(총부 유행문화재 제206호)과 독성·나한탱, 경주 금정사 지장탱화, 김천 봉곡사 금약부 등도, 고창 문수사 시왕상 4위, 금강역사상 2위 등 14점에 달한다. 지난 3월 1일경에는 대전 고산사에서 불상 대좌가 없어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회수된 것은 고창 문수사의 시왕상 4위에 불과할 정도로 도난당한 문화재를 되찾기란 거의 불가능 실정이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문화재범죄에서 범인 검거율은 23.4%, 문화재 회수율은 6.7%(1985~2004)로 일반적인 재산범죄의 검거율 77.9%와 상당히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검거·회수율이 현저하게 낮은 까닭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문화재범죄를 수사 역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달성사 도난사건 역시 3~4인의 절도단이 명부전 연문 장삼을 꿰고 들어와 경보기를 차단하고 범행을 저지른,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5일이 지난 24일까지 아무런 단서조차 찾지 못한 채 대홍사와 달성사가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어놓을 뿐이다.

절도 방법 뿐 아니라 수사망을 피해 문화재를 암거래하는 수법 또한 지능화

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포함된 문화재범죄단은 절도한 문화재를 여러 부분으로 분할하거나 제작년도·소장처·제작자를 기록한 화기(畫記)를 소멸하는 등 현상을 변경해 수사를 어렵게 하고, 해외밀반출조직과 연계된 전국적인 비밀



달성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은?

임란전 조성 현존 유물 정보 조각사 연구 귀중자료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는 유일하게 현존하는 반가상 형태의 지장보살상으로 민머리에 눈과 눈썹, 코와 입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는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1565년(명종 20년)에 남평(나주) 응전사(응흥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지방문화재 제 229호.

유통망을 구축해 점조직을 통해 암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문화재사범의 지능화·조직화 경향과 관련해 불교계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검찰·경찰청 내 문화재사범전담반 설치다. 문화재사범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검사와 전담 수사반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전담반을 설치함으로써 도난문화재의 안전한 회수에 초점을 맞춘 수사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 평소 문화재사범 동향과 음성저 거레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절도범의 활동을 대폭 위축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검찰에는 문화재사건담당실에서 문화재 사건을 맡고 있지만, 다른 많은 사건 수사도 병행하고 있어 문화재 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문화재범죄를 예방하는 가능성까지 기대하기 어렵고, 도난 사건에 대처하는 신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난 문화재는 해외로 밀반출될 위험이 커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사범전담반을 검찰 내에 설치하는 것이 도난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전담반이 생긴다면 도난사건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도 “일반 범죄 건수가 연간 100만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담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업무의 과중함보다도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나 검찰의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계종 문화부 박삼준 계장은 “문화재는 도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충분한 가치를 갖는 공동의 자산이라는 점을 간파해선 안 된다”며 “담당검사, 사무인력, 수사인력 약감 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하면 예산증가요인 없이도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엽·박익순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8>

업의 과학

업이라는 용어만큼 불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도 많지 않다. 또한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의 생활에 깊이 녹아 있는 말도 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만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업의 인도 말은 카르마다. 아마 의도된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결과를 일컬어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순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인도인들의 범세가 배어 있는 말이다. 현재의 행동의 결과나 반드시 나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도덕적인 인과론이 포함된 말이다. 과연 나의 의도에 의한 행동의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남을 돕고 나면, 아무리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뿌듯한 행복감을 느낀다. 남을 괴롭히고 난 후, 아무리 승리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더럽고 깨끗한 것이 마음먹기 달랐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더 깊은 업의 법칙이 숨어 있다. 일단 나의 입에서 나가고 난 침에는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나의 입에서 나간 침을 더럽게 느끼도록 나를 구성했던 과거의 ‘업’들이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과거의 업의 흔적들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동기계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이다. 그 깊이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인연법을 설명하는 것이라. <망등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고집멸도(苦集滅道)

의도된 행동의 결과, 순환적 인생관 담겨 실제 이해하고 집착 벗어날 때 자유의 삶

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허무감과 자괴는 남는 법이다.

이와 같은 선업과 악업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과학은 이러한 질문에 몇 가지 단초를 제공한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뱀을 싫어하는 이유에는 아마도 수 백 만년 동안 뱀으로 대표되는 파충류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받았던 공포가 녹아 있을 것이다. 소름이 끼치는 행동(業)에는 긴장하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하는 것이며, 이 효소의 분비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메모리 장치인 DNA에 저장된 명령의 결과이다.

다른 예를 들기로 하자. 침을 뱉고 나면 더럽게 느낀다. 방금 전 자기의 입에 있었던 것이 데도 말이다. 흔히

라는 인연법이 증생과 다르지 않다고 하신다. 그리고 업과 증생이 다르지 않고, 증생과 업이 다르지 않다고 하신다. 인간을 포함하는 삼라만상의 생존하려는 모습이 바로 업의 결과이고 원인이라는 점을 간결하게 설명하신 것이다.

과거의 ‘업’의 그물에 갇혀서만 살아가는 생은 참으로 고단하고 허망하다. 그 업의 실체를 이해하고 집착에 의해서 벗어나는 모습은 참으로 생각하고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유 없이 ‘나’라는 생각이 말썽을 일으킬 때, 말썽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관찰하면 집착에서 비롯된 업의 그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만남이 더 큰 좋은 업의 원인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개 천 지 조 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호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술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치셨는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응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시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상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道導師)이 직접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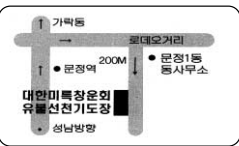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 (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절망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돌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상대전을 찾아 예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외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으로 지금껏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입니다!